

# 전북중기청,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확대

## 지역중심 사업추진 전환 현장밀착 맞춤형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추경예산을 확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공장ICT는 설비 및 자동화 솔루션이 융합되어 시장과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적시에 생산, 고객이요

구하는 시점에 납품 하도록 실시간 의사결정 운영체계가 최적화된 인공 지능형 공장이다.

전북중기청은 지역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현장밀착 지원을 위해 사업추진체계를 중앙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전환, 지역산업 여건에 맞는 사업추진계획 수립 추진기관 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전북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북 스마트공장 추진 협의회'를 구성 전북테크노파크를 사업추진기관

으로 선정,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대상기업 발굴 선정 현장 점검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련 협·단체가 요청하면 언제 어디든지 현장으로 가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맞춤형 컨설팅 및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기업 공정보장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 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으로(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스마트공장

미구축기업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구입에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스마트 공장 구축기업 대상, 스마트 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기존 시스템과 연동 설비 구축 등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신청기업은 사업종료까지 전문 기술위원이 주기적 사업장 방문,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화는 선택에서 필수가 됐다며 시스템 도입을 통한 생산량 증가 불량률 감소 등 기업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료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북중소벤처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공영식과장 063-210-6440 박정후주무관 063-210-6451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정읍시 방문 업무설명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신진균)는 지난 20일 정읍시를 방문해 유진섭 시장에게 2018년 주요사업계획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실시했다.

신진균 지사장은 농지은행사업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비롯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 공기관대행사업 등 농업인의 영농편익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하여 정읍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진섭 시장은 최근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인들이 영농에 어려움이 없도록 고생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정읍시 농촌지역발전 및 살기 좋은 농촌 공간 조성과 내장저수지와 용산저수지를 활용하여 관광마케팅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읍시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농업인들의 영농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배수로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 농어촌공 전복, 태풍·집중호우 대응위해 비상대비체제 돌입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광재)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옴에 따라 비상대비체제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북지역본부는 700여명의 전 직원 동원하여 침수와 시설 안전사고 등 예방 위한 사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집중호우 발생 시 배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417여개의 저수지와 58여개의 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을 사전 점검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비상수문과 경보장치 비상전력 등을 점검 수로의 장애물을 제거 농경지 등의 침수를 막기 위한 점검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사현

장의 안전사고 대책 대비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절대지나 급경사지와 같은 토사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에 빗물 스며들지 않게 방수로 설치, 침수에 따른 배전반의 안전성 여부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전북지역본부는 태풍 예비 특보 시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 비상대비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며 기상과 재해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지휘할 계획이다.

배수장과 배수갑문 등의 시설물 가동 인력을 비상 배치, 해당 지자체 등 유관기관 및 긴급복구동원업체와 비

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박종만 전북지역본부장은 "올 해 이미 가뭄으로 힘들어 했던 농업인들이 태풍으로 인한 또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에 만전을 다 하겠다"며, "저수지 하류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에도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풍 솔릭은 21일 15시 중심기압 955hPa 최대풍속 40m/s의 중형 태풍으로 한반도에는 22일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역본부 수자원관리부 유정석과장 063-239-2103 문의 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김동연 "경제 어려운 책임, 회피 않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가 책임져야 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성장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김 부총리가 나름의 각오를 밝힌 모양새다.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불화설도 해명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당과 협의해 개선하고 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해, 소득주도 성장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김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의 틀은 변함없이 가야 할 사안이다"며 "제가 수정하겠다고 말한 취지는 시장과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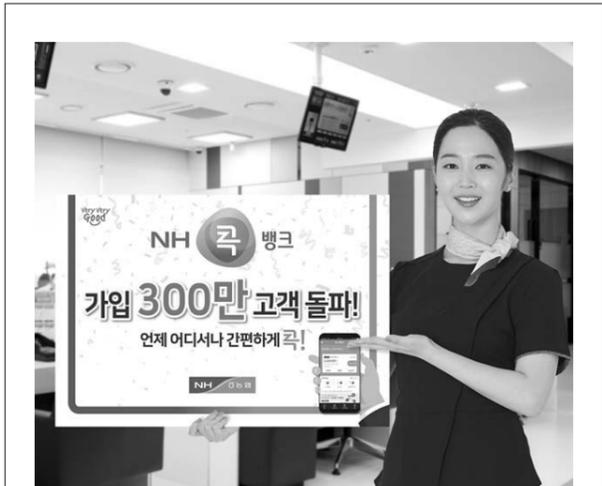
'수정이 필요한 경제정책이 무엇이

냐'라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신속적으로 하는 것을 국회와 의논해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나 양극화를 봤을 때 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시장의 수용성 문제나 사회 안전망 분리, 자영업 숫자 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 위원회에 참석했다.



'NH국민은행'이 출시 2년 만에 가입고객이 300만명을 돌파하는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다.

## 농협 'NH국민은행' 가입고객 300만명 돌파

농업인 전용 디지털 콰드 2.0... 농업인과 도시인 연결 가교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간편한 서비스로 호평을 받는 스마트 기반 앱 NH국민은행가 농업인 디지털권의 증진에 기여하며 가입고객 300만명(전북 12만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NH국민은행은 젊은 세대 뿐 아니라 핀테크로 소외되기 쉬운 농업인과 고령층도 쉽게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개발, 출시 2년 만에 가입고객이 300만명을 돌파하는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다.

NH국민은행은 간단한 터치만으로 조회 송금이 가능해 실이용률 90%에 육박 월1,000만건 이상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영농지원 조합원 사랑방 일기예보 기능을 담은 농업인 전용 디지털 콰드 2.0을 지난 7월 확대개편, 농업인과 도시인을 연결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농협상호금융 관계자는 "농업인을 비롯한 모든 고객을 고려해 편의성을 높인 NH국민은행이 고객 여러분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기쁘다"며, "향후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용자 화면 개선 마케팅 채널 확대(카드상품가입 환전기능)와 함께 농산물 직거래장터 '복푸드'를 10월말 오픈 예정으로 이용 편의성을 더욱 향상 시킬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당정, 공정거래법 권한 분담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

당정이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을 검찰과 법원 등에 분담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담합 및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과징금을 최고 2배 올리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벌여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의 토대 위에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검찰·법원 등에 집행권한을 분담하고 가격·입찰담합 등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및 형사제재 강화 ▲대기업집단 정책 관련 잘못된 지배구조 및 행태 규율 강화와 동시에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 활성화 제도 마련 ▲공정위법 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 기업의 방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을 담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은행감독원 심의필·제 2018-디-37호 (심의일자: 2018. 1. 30 현재)

#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 그 누구에게나 희망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

1588 - 4477
www.jbbank.co.kr